

論 說, 資 料

農 業 土 木 技 術 者 の 進 路

李 相 賢

自然力과의 不斷한 鬪爭속에서 이를 克服하며 支配, 利用하려는 人間의 努力은 드디어 自然속에 잠겨있는 에네르기의 本源을 發見하여 이를 管理 操縱함에 이르렀다. 즉 原子核속에 貯藏되어 있는 莫大한 에네르기가 人間의 힘으로 비로소 放出되기 始作한 1942年을 期하여 人類歷史는 原子時代란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 時代의 첫 帳을 裝飾한 原子爐는 自然探究에 對한 人間의 限없는 꿈의 實現을 爲해 실사없이 深知의 周波를 던져왔다.

이와 같이 急轉, 飛躍一路에 있는 科學의 威力 앞에 自然寶庫의 門은 그 開放이 促求되어 왔으며 來日의 人類社會에의 供與를 期約하고 있거니와 反面, 限定된 土地生産力은 膨脹一路에 있는 人口에 對한 基本食糧需給面에 숨가쁜 一面을 露出하고 있다.

따라서 土地生産力の 増大를 爲한 基本課題로서의 農地改良은 食糧問題解決에 絶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現代科學의 힘은 먼 하늘의 星座의 運行을 비롯하여 神秘한 宇宙深索을 爲한 宇宙로켓트의 發射를 成功케 하였으나 가장 가까이 接하고 있는 한층의 흙의 變化無雙한 姿態와 한방울의 비에서 始作되는 流動無盡한 물이 內包하고 있는 秘密의 世界는 아직도 前途 遼遠한 科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무릇 技術이란 人間生活에 直接的인 影響을 갖는 具體的인 現象을 取扱하는 것을 第一의 目標로 함에 비추어 特히 土地와 물을 相對로 이에 依한 作物栽培의 合理化를 前提로하는 農業土木技術은 이들 生産環境의 科學的인 分析을 理論的基礎로 하는 하나의 綜合인 同時에 土地와 물에 關한 科學에 對한 現實的 地盤을 주는 것이다.

農地改良은 地域的인 여러가지 可變因子의 綜

합에서 檢討되어온 하나의 增産策이 있으며 農業經營의 現代化를 爲한 基本이 있다.

따라서 農地를 開拓하고 이를 改善하는等 生産環境의 人爲的인 造成을 爲한 農業土木技術은 農業發展을 期約하는 最大의 原動力이 되어 왔다.

아직도 因習的인 옛 탈을 벗어나지 못한 農業의 後進性을 打破하여 理想的인 農業發展이 時急히 期待되는 오늘날의 우리의 現實은 農業土木의 새로운 方向으로의 進出을 促求하고 있다.

古來로 農本國으로써 水稻作을 太宗으로하는 우리나라의 農業構造는 于先 既耕農地로써 天水依存의 不安全한 耕作下에 있는 天水畚 및 水利不安全畚等에 對한 灌溉改善에서 增産效果를 거두어 왔으며 農業土木은 灌溉改善을 爲한 水利施設物設置에 關한 工學的인 技術面을 擔當해 왔다.

그러나 單位面積當 生産의 高度화와 時代潮流에 맞는 農業經營을 爲해서는 偏重된 工學的인 技術面만으로는 所期한 成果를 올릴수 없는 것이다.

이에 土壤學的인 面 및 가장 重要한 作物學的인 面等 이들 세가지를 聯關 綜合시켜 系統的인 理論과 實際化를 圖謀함으로써 眞摯한 農業土木의 發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爲해서는 農業土木技術者의 廣範한 知識習得이 要請되며, 이로서 農地改良과 農事改良과의 有機的인 聯關下에 所期한 效果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의 젊은 世代가 이어갈 農業土木은 上記한 세가지 要素의 完全한 結合에서만 바라는바 그 目的을 達成할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다.

새로운 農業環境의 造成을 爲한 꾸준한 努力이것은 곧 農業土木技術의 成長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보다 나은 來日의 成長을 爲한 努力만이 農業土木技術者의 使命일 것이다.

멀리 갈려는 者에게는 큰 準備가 必要하다. 또

한 이것은 少數者의 힘으로는 이루어 질수없다. 科學의 基礎위에 그리고 綜合的인 有機的計劃下에서의 技術의 發揮만이 비로소 보다 나은 앞날의 農土改善을 期約할수 있을 것이다.

既耕農地의 改良을 비롯하여 山林原野의 開墾等, 前途遼遠한 農地改良事業은 앞으로의 農業韓國의 重要한 課業의 하나이다.

먼저 우리는 社會의 構成分子로서의 自己位置에서 그리고 農業土木技術協會 會員으로서의 重要位置에서 보람있는 功獻과 奉仕의 길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13年間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農地改良事業의 實績만도 大小 337地區에서 86,078町步를 水利安全化시키는 등 많은 成果를 올려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實績과 並行하여 向上發展되어야 할 農業土木技術은 그 우려했던 무엇을 자랑할수 없음이 率直한 告白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向上에 자못 期待되는바 크며, 先進諸國의 優秀한 技術習得을 土土로하여 獨創의 舞台展開에 다 같이 힘써야 할 것이다.

大體로 灌溉排水를 爲主로 하는 農地改良에 있어서는 그 性質上 모든 境遇를 一律的으로 計劃設計할수는 없다. 計劃에는 調査가 先行되어야 하며, 이 調査資料의 多少와 그 內容의 適否는 計劃의 致命的인 要素인 同時에 이들 資料의 範圍內에서 가장 合理的인 計劃이 세워져야 할 것인즉 먼저 自然에서 나타나는 關係現象을 精密히 觀測하는 同時에 記錄된 實驗의 結果를 綿密히 檢討

하여 이로부터 合當한 하나의 結果를 이끌어 내므로써 設計의 完璧을 期할수 있을 것이며 作意없는 心境에서 技術修業에 專心함으로써 事態의 正確한 把握과 公平한 判斷을 내려 앞으로의 改善의 餘地를 發見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어떤 部門보다도 흠 물을 相對로 하는 技術에 從事하고 있다. 最近, 土質力學의 눈부신 進步에 依하여 흙의 性質이 漸次로 밝혀져가고 있다. 從前까지의 土堰堤築造에 있어서의 施工中心主義는 力學的인 分析과 考慮가 必要하게 되었다. 즉 構造工學的인 새로운 面이 加味檢討되어야 할 段階에 놓여있다.

우리는 새로운 出發에 勇敢하여야 겠다. 自己의 힘이 모자람을 주저할 必要는 없다. 굳굳한 意志와 꾸준한 努力으로 모자람을 補充해야 할 것이며 冷靜한 心境에서 研究課題를 스스로 摸索해야 할 것이다.

既往에 設置된 數百, 數千의 水利構造物에서 지난날의 缺點을 찾아보며, 現實에 對한 새로운 角度에서의 檢討, 批判을 通하여 場所에 맞는 그리고 効果의이며, 經濟的인 水利施設物의 設置가 可能할 것이다.

人跡이 먼 山間僻地, 異郷에서 鄉愁의 꿈을 지닌채 默默히 奉仕하는 農業土木技術者の 손길에서 머지않은 앞날, 沃畝, 黃金波에 豊年歌가 물려오려니 보람있는 成果를 期待함에 못지않게 스스로의 技術向上에 專心全力을 기우릴것을 빌어 마지 않는다. (筆者, 副會長)